

## 백내장 수술비를 다시 지원합니다



사우회가 회원 의료복지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작년 3월 중단했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이달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5월 15일

사우회 회의실에서 여의도 소재 <JC빛소망안과내과 병원>과 의료제휴 협약서 서명식을 갖고 사우회 회원과 배우자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이나 배우자가 <JC빛소망안과내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인당 1차 수술비(35만원 한도 내 지원, 한쪽 눈만 수술할 경우 17만 5천원 지원)는 사우회에서 직접 부담하고, 회원은 수술비 한도를 초과하는 실비 및 진료비만 부담한다.

수술 후 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진료비와 치료비는 회원특별가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경배 대표원장을 대신한 전우형 전략기획실 팀장은 “MBC사우회 회원과 가족들에게 최신 장비로 백내장을 비롯한 안과 검진을 해드리겠으며, 정밀진단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수술과 치료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정밀 안과 검진도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사우회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66명의 회원과 가족들에게 2천3백여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백내장 검진예약은 JC빛소망안과 MBC사우회원 전용예약 안내 콜센터(02-2138-1063)로, 기타 사항은 사우회 사무처(02-722-7416)로 문의하면 된다.

## 창립 28주년 기념 사우회 단합대회 개최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다 멈춘 사우회 창립 28주년 기념 회원 단합대회가 5월 18일 오전 11시 녹음이 짙어가는 양주 MBC문화동산에서 열렸다.

이날 날씨는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다 멈춘 소강상태였지만, 연이틀 계속 비가 내린 탓에 당초 참가 신청 숫자에 못 미치는 18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오전 9시 반 회원들은 경희궁 주차장에서 4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연수원에 도착해 준비된 행사장에 자리를 잡았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 이연현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땀 흘려 이루어낸 수고와 애정이 깃든 이곳 문화동산에서 사우회 창립 28주년 단합대회를 갖게 되어 더욱 뜻 깊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연현 회장은 “회사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자리를 제공해 준 최승호사장을 비롯한

MBC 임직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민식 고문의 건배제의에 이어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이동갈비가 풍성하게 준비된 식탁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하는 동안 사무처에서 미리 준비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박순웅(편제)회원 등 46명의 회원들이 사우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화중 경영지원 국장과 이정상 총무부장, 최부영 총무부 사우회담당 국장을 비롯해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연수원 담당 이인성씨 등 현장 직원들이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주었고, 특히 MBC 의무팀의 이유진 간호사도 부상한 회원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등 시종일관 회원들의 건강 돌보미 역할을 해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회원들은 오후 1시 반경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자는 인사를 나누면서 아쉬움 속에 문화동산을 떠났다.

CREATIVE MEDIA GROUP

<p>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p>	<p>Los Angeles DODGERS</p>	<p>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p>
<p>또 하나의 No.1</p>	<p>드라마로 꿈꾸는 세상</p>	<p>CREATIVE MEDIA GROUP</p>
<p>전 세대가 공감하는 음악 채널</p>		



## 봄철 등반대회 성황리에 마쳐



2018년도 봄철 등반대회가 4월 19일 북한산 둘레길 2구간에서 열렸다. 65명이 참가한 이날 산행은, 오전 10시 15분 우이동 이준추 열사 묘역 입구에서 시작해 솔밭 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에 이르기까지 6.1km 구간에서 이뤄졌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출발에 앞서 “화창한 날씨 속에 모든 회원들이 즐거운 산행을 하시길 기대한다”면서 파이팅을 선창했고 참가 회원들도 모두 파이팅을 외쳐 이에 화답했다.

박한성 등산 동호회 회장 선도로 10여분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 회원들은 광복군 합동묘소 등 독립유

공자 묘역과 손병희 선생 묘소에 이르는 둘레 길을 산행하면서 신록이 짙어가는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이날 날씨도 우려했던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산행을 도와줬고, 회원들은 산행 후 사우회 단골식당인 거북이네 집에서 두부전골과 파전, 도토리묵을 안주로 막걸리와 소주잔을 나누면서 뒤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여주시 농협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박일영 사장은 이윤성 여주농협 홍보대사를 통해 이날 등산대회 참가회원들에게 진공포장 쌀 200포대(500gm 들이)를 선물로 전달해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 조황釣況이 부진했던 봄철 낚시대회

2018년도 봄철 낚시대회가 4월 27일(금)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오후 12시 30분까지 계속됐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아래 전반적으로 조황이 부진했던 이날 대회에서 정인영(편제) 회원이 27센티미터의 붕어를 낚아 올려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26센티미터의 붕어를 낚은 강정수(관리) 회원, 3등은 김휴선(보도) 회원, 행운상은 김영균(관리)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낚시가 끝난 뒤 참가 회원들은



흥국화재가 제공한 매운탕과 회로 차려진 오찬을 즐겼으며, 사무처는 진공 포장된 여주쌀 2.5kg씩을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로 제공했다.

## 합창으로 감동을 전하다



조 석 영(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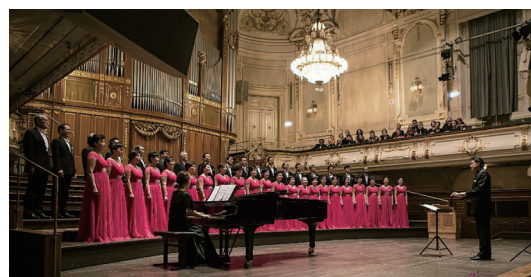
매우 감사하게도 79세의 동갑네 우리 부부에게 노후의 황금기를 듬뿍 안겨주고 있는 ‘청춘합창단’은 작년 11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서 열린 ‘세계합창페스티벌’에서 두 번째 해외 연주를 마쳤다.

2015년 6월 유엔 본부에서의 첫 공연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유럽의 전문 합창단과 중창단이 대거 참가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경쟁과 심사의 부담 없이 각 출연팀이 특징과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며 비경쟁 페스티벌이었다.

아마추어 시니어 합창단으로서는 참가할 엄두를 못내는 대회였지만, 우리 합창단의 실력이 아마추어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평가 덕분에 대회 주최 측이 특별초청을 해줬다.



이 대회의 주제는 <BACH FOREVER>.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모든 참가팀은 연주곡 중 반드시 바하의 곡을 포함시켜야 하고, 폐막식 공연에서는 전 참가팀이 연합



합창으로 바하 합창곡들을 부르게 되어 있어서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 중 우리 합창단은 PAULUS/Mendelssohn Choral/CHRISTE/GLORIA 등의 원어가사를 암기하는데 주력했고, 또한 우리가 단독으로 연주할 곡도 몇 개 준비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주 1회 하던 연습도 출국 석달 전부터는 주 2일로 바뀌 암보(暗譜)를 서둘렀고, 서로 보완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단원들을 두 팀으로 나눠 암보경연을 갖기도 했다.

개막식 연주는 그라츠의 고색창연한 ‘마리아 힐

페’ 대성당에서 열렸다. 파스텔 톤의 은은한 중간색과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베이지색 바탕이 우아하게 어우러져 안정감과 성숙미를 높여준 우리의 한복 공연 의상은, 유엔본부 공연에서 이미 절찬을 받은 바 있지만 그라츠 객석의 반응도 뜨거웠다.

동양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평균연령 65세의 한국 시니어 합창단 단원들의 존재 자체가 대회의 주목거리였다. 개막식 연주부터 우리 합창단은 열렬한 기립 박수로 주목을 받았고 폐막식 티켓도 일찌감치 매진돼 뒤늦게 입장권을 구입하려던 현지 교민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두 번째 연주는 그라츠 시장의 초청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투어의 백미는 폐막식 때 그라츠 최고의 공연장 ‘스테파니엔홀’에서 만장의 청중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은 공연이었다.

오래도록 이어지는 박수갈채에 지휘자, 반주자, 단원 일동은 물론, 대회 참가를 위해 애썼던 기획사 직원들과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힘을 보탠 협력업체 직원들도 성취감과 행복감을 만끽했다.



현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한 교포는 ‘고국에서 왔던 어떤 공연단체보다 청춘합창단의 공연 모습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꿈의 공연을 마친 일행은 비엔나, 쾰른, 프라하의 명승지를 둘러보며 유쾌한 시간을 즐겼고, 도처에서 틈나는 대로 즉석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로 부터 열띤 박수를 받았다.

다음 무대는 어디로 정할 것인가? 요즘 단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합창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요즘이다.



경·조사

■ 구순 ■

곽철(미주)07/20

■ 팔순 ■

정영기(편제)06/17 박수명(편제)06/20 김진호(보도)07/01  
이성화(ANN)07/06 박승선(관리)07/12 홍진표(관리)07/20  
김문기(기술)07/22 황선길(편제)07/27 윤영모(미주)07/31

■ 고희 ■

신승철(관리)06/01 박찬근(관리)06/09 백성원(관리)06/13  
조일동(관리)06/17 장수봉(편제)06/23

■ 회갑 ■

이명재(편제)06/14 정옥균(기술)06/15 오광택(보도)06/20  
장수남(편제)06/21 양윤주(기술)06/25 이봉수(편제)07/17

■ 결혼 ■

유태희(관리)딸03/31 이강식(관리)아들04/28 김정수(편제)딸04/28  
임주완(임원)차녀05/05 이연구(업무)장남05/13 이창원(관리)차녀05/27  
김갑순(관리)장남05/27 강성주(보도)아들06/02 이봉천(편제)차남06/02

■ 부음 ■

김애경(관리)모친상03/17 김규서(보도)장모상03/19  
이명재(편제)부친상 03/21 반주원(ANN)모친상03/22  
서은선(ANN)시부상 03/23 윤정식(보도)부친상03/29  
이상욱(관리)모친상03/31 장동철(기술)장인상04/05  
이무영(편제)장모상04/05 김갑순(관리)부친상04/07  
오수천(관리)모친상04/15 지덕환(관리)장모상04/28  
서은선(ANN)시모상04/28 김일중(관리)모친상04/30  
박정근(편제)장모상05/01 이수향(보도)모친상05/13

회원 / 회비관리

■ 연회비 ■

3월 : 권태환('18) 김선희('18) 김채영('18) 김철순('18) 남궁미('18)  
박민정('18) 노영인('18) 박세림('17, 80세 납부 끝) 박종순('18)  
박찬순('18) 박준수('15~'17) 반주원('18) 서은선('18) 안종순('18)  
안주희('18) 윤남현('18) 이명기('14~'19) 이명순('18)

이성구('18, 80세 납부 끝)  
이양휘('18) 이인숙('18) 정영희('18) 조병영('16~'18)  
차종식('18, 80세 납부 끝) 채규억('18~'20) 최운형('18)  
최호철('18, 80세 납부 끝) 최화숙('18) 황경자('18) 황종휘('18)

4월 : 고창근('18) 구종희('17~'18, 80세 납부 끝) 김기도('18) 김대수('18)  
김재식('17~'18, 80세 납부 끝) 김조곤('16~'18, 80세 납부 끝)  
박창순('18) 박해선('18) 신대근('18) 오주환('17~'18) 유흥렬('18)  
윤상준('20) 이성호('18) 이승재('18) 이연구('17~'18) 이처경('18)  
임동훈('18) 임부영('16~'18) 정국록('18) 천영숙('18)  
최남석('16~'18, 80세 납부 끝) 최정일('18) 하영상('14~'18)  
홍성묵('11~'17)

5월 : 김일중('18) 지덕환('16~'18) 한웅희('18) 황학구('18)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 최동윤 은평구 진관4로 100  
편제 : 김건영 010-3789-0258  
유수열 동작구 서달로 91  
이오기 경기 파주시 동패로 117  
보도 : 김민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민경창 010-5419-0032  
이상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전영배 010-9958-9274  
정철영 서초구 방배로 3길 10-3  
최근식 강서구 강서로 5다길 28  
ANN : 정경수 중구 다산로 56  
기술 : 김학윤 구로구 신도림로 11나길 21  
박진석 중구 청구로 1길 23  
신명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11번길 10-7  
양홍열 010-4326-9118  
최홍림 대전시 유성구 배울2로 42  
업무 : 박태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69  
관리 : 송인의 구로구 경인로 248-14  
심재주 강남구 삼성로 629  
이상욱 010-3814-1538  
정남영 경기 과천시 별양로 111  
부산 : 정판식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83번길 9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영언(보도)

3월 22일 별세. 향년 76세. 1971년 보도국 체육부 기자로 입사해 스포츠 취재부장, 스포츠국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 3월 퇴직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김준영(전 강릉MBC사장)

4월 9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정수장학회 총무부장을 거쳐 1970년 강릉MBC에 입사한 후 전무, 감사, 사장을 역임했다.



황영욱(보도)

4월 13일 별세. 향년 75세. 1971년 보도국에 입사하여 제2사회부차장, 라디오편집부장, 심의국 심의위원을 역임한 후 1998년 명예 퇴직했다.



한석호(관리)

4월 2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89세. 1969년 7월 총무국에 입사해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다 1984년 퇴직했다. 퇴직 후 광신교역 상무 등을 역임했다.



홍성묵(관리)

4월 12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80세. 문화관광에 근무하다 1976년 총무국에 입사했다. 시설부문에서 일하다가 1996년 정년퇴직했다.



김영복(관리)

5월 10일 별세. 향년 81세. 1978년 입사해 국제협력부에서 주로 방송 관련 해외협력업무를 했고 1995년 퇴직했다. 재직 중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연락관을 역임했다.



## 회/원/동/정



## 이해성(보도)

6.15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기 위해 부산 해운대2 지역구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등록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성경환(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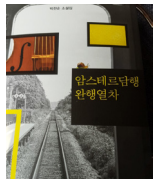
4월 24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 3개 매체로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부의 각종 기록영화 제작 및 영상정보 서비스 업무, 영상 수익사업 등을 하고 있다.



## 박찬순(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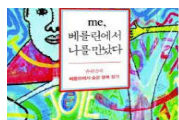
2013년부터 4년간 '소설문학' 등에 틈틈이 발표했던 '달팽이가 되려 한 사나이'

등 11개 작품을 수록한 "암스테르담행 완행열차"를 출간했다. 이는 "발해풍의 정원"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에 이은 그녀의 세 번째 작품집이다.



## 손관승(보도)

"me, 베를린에서 나를 만났다"를 출간했다. 베를린특파원을 지낸 그가 찾아간 최근의 베를린은 '예술혁명 도시, 라이프스타일 도시, 색시한 도시, 스토리 도시'로 변신했고, 이런 변신의 요체를 베를린이 해온 '자기다움을 찾는 노력'에서 구한다.



## 김우룡(편제)

"뉴스와 콩글리시"를 출간했다. 우리 일상에서 잘못 쓰고 있는 영어표현과, 언론이 오

용하고 있는 콩글리시를 지적하고, 외국인들이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



운 서울시의 대표적인 콩글리시 사용 현황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유혜자(편제)



2016년 음악에세이 "음악의 알레그레토", 2017년 "아침에 떠나는 문화재 산책"에 이어 15번째 저서인 "미완성이 아름다운 것은"을 출간했다. 60여편의 수필들이 수록된 작품집으로, 특히 3부는 작고하신 스승, 선배, 동료에 대한 추모의 글을 모았다.



## 오명환(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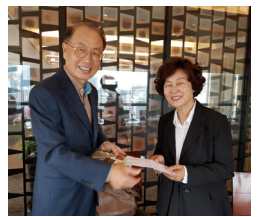
故김종학PD의 5주기를 맞아 "불꽃 당신 김종학"을 출간했다. '여명의 눈동자', '동토의 왕국', '모래시계' 등 33년간 34편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김종학PD에 대한 심층 리뷰 평전이다. 저자 자신 항암투병 중임에도 사력을 다해 집필했다.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

3월 27일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3월 정례모임을 가졌다. 초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이라 평소와 달리 9명만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박찬순 회원이 최근 출간한 소설집 '암스테르담행 완행열차'의 발간을 축하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인사동클럽에서는 참석이 예정돼 있던 20명 숫자만큼 소설집을 구입해서 회원들에게 전달했고, 박 회원은 이날 점심값을 지불함으로써 감사를 표했다.



## 문광회(회장 황귀철)

4월 12일 잠실 석촌호수 벚꽃길을 걷고 분가설령당에서 오찬을 했다. 여러 회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울배반적 화두話頭



## 이시권(편제)

방송 현업에서 뛰는 동안 열誠과 성誠을 다 했던 우리. 방송 전문가로 한평생 몸담아 오면서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낸 우리. 직종은 서로 달랐지만 우리 다른 직업군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일등 방송을 만들어 내는데 남다른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지 않나 싶다. 누가 감히 우리를 앞서 나갈 것인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트렌드를 앞장서서 개척해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살아왔던 현업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방송이 전문적 직업임은 불문가지 不問可知다. 정년으로 직장생활을 마친다 해서 곧바로 백수로 돌아가기엔 같고 닳은 전문성이 아까운 직업이다. PD, 기자, 아나운서, 기술, 미술, 카메라 등 어느 하

나 예순이란 나이로 끝내기엔 아까운 '청춘성 직업' 아닌가. 무르익을 대로 익어 완숙해진 시기에 정년이 라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방송 일을 이어가고 있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종편채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단에서, 그 밖의 이런 저런 방송 제작현장에서 농익은 실력을 활용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린 손주나 돌보고, 유유자적 노는 늙은이로 살아간다는 건 '국가적 낭비'가 아닐까? ('이제 쉬어야지 무슨 소리야'라는 이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배운 도둑질이 아깝다'는 취지에서 생업의 연속성을 화두로 띄워 봤지만, 여기엔 또한 '이울배반'이 뒤따른다. '이울배반'이란 '서로 모순된 두 명제를 놓고 각각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니, 그 하나는 '능력을 잠재우지 말자'는 것과 그러나 '자신의 모태직장인 MBC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 후 MBC 관련 일에 재취업한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채널을 위해 일한다면, 그래서 MBC 프로그램 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면, 그래도 재능을 아끼지 말라고 해야 할지? 의욕에 앞서 괴로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치열한 시청률 경쟁에 살아남는 것에 몰두하는 방송세계에서 과연 '누이도 좋고 때부도 좋을' 수가 있을 것인가?

최근 MBC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경쟁에서 뒤진다는 소식을 듣는다. 뉴스도 그렇고, 시청률 1%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드라마도 있다. 격정되지만 머지않아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믿고 싶다. MBC가 쌓아온 금자탑을 어느 순간 퇴락시킬 리 없다는 믿음이 남아 있으니 그리 될 줄 안다.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는 선배들은 지금의 MBC가 처한 상황에 끝까지 혀를 찬다. 오로지 시청자만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시국에

휘말려 시청자가 떠난 것이라 진단한다.

화두를 다시 돌려 본다. MBC를 평생직장으로 품고 살았던 이들이나, MBC를 거쳐간 이들 모두는 오로지 '일등방송 MBC'를 염원한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향이 낙후되고 처진 마을로 전락하는 걸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오면 쇠락한 고향을 내세우기 부끄러워 대답이 머뭇거려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화려했던 과거를 지닌 우리에게 여태껏 남아 있는 자존감이 더 이상 깎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정년을 지나서도 어디든 방송 제작현장에 머무를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다. 전환기 상태의 MBC를 바라보면서 'MBC를 능가하는 현장이라도 괜찮다'고 해야 할지, '과거의 영화榮華를 끌어 내리는 일일랑 하지 마시라'고 권고해야 할지, 이럴 때 표현할 적당한 단어는 안티노미(Antinomy).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코너입니다.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어머니의 보물이었던 합격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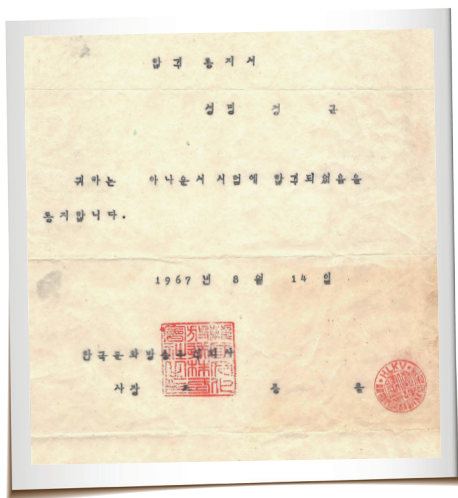


정 균(편제)

1967년 7월말쯤 인사동에 있는 정치대학에서 MBC 제4기 아나운서 선발시험이 있었다. 300명쯤 응시한 것으로 기억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상식, 실기시험은 뉴스 기사를 마이크 앞에서 읽는 것. 임택근 상무와 최세훈 아나실장이 심사를 했다.

합격자는 김명순, 김채영, 배병진, 윤희자, 이부림, 정영희(여성 6명), 김관영, 김번성, 김원섭, 박재규, 정 균, 정영환, 조석영(남성 7명) 등 13명. '합격 통지서'는 우편으로 배달됐는데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몇 년 전 95세에 별세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속에서 누런 봉투에 든 이 접수증과 합격통지서, 발령통지서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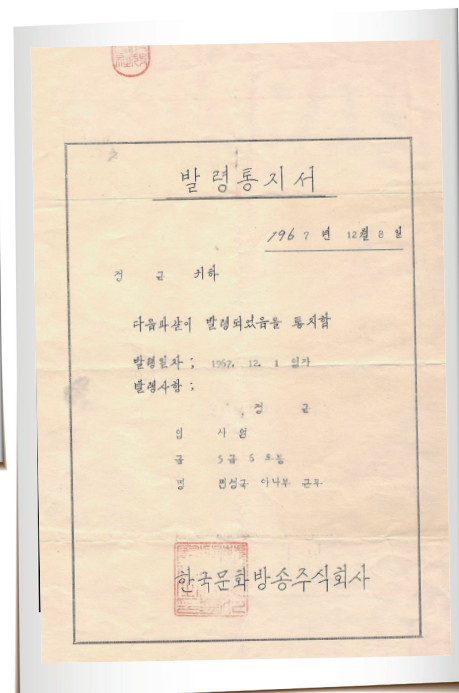
깊숙이 넣어 놓으셔서 그런지 보존 상태가 좋았다. '발령통지서'는 3개월간의 혹독한 아나운서 연수를 끝내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후련한 마음으



로 어머님께 보여드렸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아나운서 생활은 길지 않았다. 내 자신의 뜻보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제작부 PD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자칫 평생의 한이 될 뻔했던, 이루지 못한 '아나운서의 꿈'은 90년대에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을 달린다'를 6년 동안 진행하면서 풀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고마웠다.

짜장면값이 50원이던 그 시절에 수습기간 동안 받은 월급은 짜장면 60 그릇에 해당하는 3,000원이었다.



## 故 김영철 감독, I ALWAYS MISS YOU!



윤 영 관(편제)

PD 시절에는 인복이 많아 훌륭한 스태프들과 늘 함께 했다. 방송이 컬러로 바뀌고, ENG 카메라가 선보이던 1982년, 故김영철 촬영감독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그해 가을개편에 “다큐멘터리 역사의 고향”이 편성됐고, 일 년 넘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다니며 그와 함께 촬영을 했다.

그 후 “인간시대” “MBC 스페셜” 등 80년대와 90년대를 함께 보냈다. 사진은 2001년 “MBC 창사 40주년 특집 이슬람”을 제작하러 47일간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로 출장 갔을 때 찍은 것이다. 한 여름의 중동은 살인적 더위라서 한밤중에도 39도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한낮에 50도를 오르내렸다. 제작여건 또한 열악했다.

취재가 제한되고, 사전 섭외한 사람 외에는 인터뷰도 불가능했다. 먹는 것도 시원찮았고 안팎으로 짜증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지만 故김영철 감독은 늘 유머러스하고 결코 짜증을 내지 않았다.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촬영 솜씨도 베테랑이었다. 촬영감독으로서 좋은 덕목을 모두 갖춘 그가 있어서 길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2001년 “MBC창사 40주년 특집 이슬람”은 4부작으로 방송되었고

1부 방송이 나간 후 911테러가 일어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해 백상대상 교양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출장을 다녀온 후 눈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신세를 졌지만 아직도 그 시절과 김 감독이 그립다.



사담 후세인의 고향 이라크 티크리트에서(왼쪽부터)  
장웅대 오디오맨, 김영철 촬영감독, 윤영관PD, 전성관 AD



## 돌아 온 ‘키자니아 맘’mom

MBC 여러 자회사 중 방송콘텐츠와 전혀 관계없는 유일한 자회사가 ‘MBC플레이비’다. ‘키자니아’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업부장 출신의 최성금(관리)회원이 10년 전 창립했는데 그녀가 최근 7년 만에 다시 경영을 맡게 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잠실에 있는 키자니아를 찾아가 최성금 회원을 만났다.



10년 전에 직접 만들었던 키자니아에 돌아 온 감회가 남다를 텐데요?

처음 MBC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10년 전 9월경에 이 회사를 차릴 때 필요한 자금이 대략 150억원쯤 됐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이른바 ‘리만브러더스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 사정이 아주 나빴어요. 은행 이자가 갑자기 높아졌고, 본사도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본사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설립을 2년 연기할 수 없느냐’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회사에 사표를 낸 저로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기업들을 찾아가 파트너십을 부탁하는 등 2년여 동안 온갖 고생 끝에 회사를 만들어서 첫 해에 30%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만 두라’는 통고를 받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밀려 난 이후, 키자니아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 한 구석에 늘 키자니아가 자리잡고 있었나 봐요.

마치 고향에 돌아 온 느낌이지만 마음의 부담도 상당히 큼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서 후임으로 유능한 경영자가 와서 회사가 번성했었다면 좋았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그만 두는데 갈등은 없었나요?

얼마 전까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물류회사 임원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여자가 하기에는 좀 거친 일들이라 어려움도 많았었죠. 특별히 저의 능력을 높이 봐주시고 아껴주신 회장님의 배려로 6년여 근무했지만, 사실 제 몸에 맞는 옷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두는데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역시 내가 일할 곳은 여기였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키자니아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야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모가 큰 대기업을 파트너사로 영입하는 것과, 체험 어린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출발 당시 100여개 였던 파트너사가 지금은 30여 곳으로 줄었구요, 입장객도 78만여명에서 60만여명 규모로 줄었습니다. 힘들게 스카우트 했던 유능한 직원들도 거의 그만뒀거나, 새로 생긴 ‘잡월드’ 같은 유사한 업체로 가버려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키자니아가 좀 된다고 싶었는지 그동안 짝퉁 회사도 몇 군데나 생겼더라고요.

부산 키자니아 설립 때문에 경영이 더 어려워진 거죠?

전임자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산 키자니아는 당초 예상 전적이 잘못됐어요. 이곳은 서울, 경기 합해서 약 2,500만의 인구 중에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만, 부산은 인근 도시 다 합해도 약 750만의 인구예요. 서울의 1/3이죠. 그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서울과 비슷한 규모로 지었고 스태프

들도 많으니까 당연히 운영이 어렵죠. 여기에서 벌어서 부산 손실을 메꾸는 형편입니다.

처음에 키자니아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10여년 전 사업부장을 그만 두고 3개월간 일본에서 연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 키자니아가 막 출범했는데, 새로운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고 크게 선전하기에 ‘이게 뭐가?’ 싶어 찾아가 봤죠. 재미있는 발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복귀한 지 얼마 안돼 글로벌사업본부에서 신사업설명회를 한다기에 가봤더니 바로 키자니아예요. MBC가 멕시코에 있는 키자니아 본사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거죠. CEO를 공모하는데 사내외에서 30여명이 지원했어요. 저는 아이도 키워봤고, 사업도 공연, 전시 등 여러 가지를 해봤고 특히 ‘방송어드벤처’라는 행사를 통해 체험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적임자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봤던 기억을 되살려 경영계획서를 빈틈없이 작성했습니다. 유능한 분들도 많았으니까 제가 선택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키자니아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멕시코에 본사가 있는 키자니아는 전 세계에 24개가 있는데, 일본이 1,2등으로 잘 되고 있고 한국은 세 번째로 잘 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요. 창사 10주년을 맞는 키자니아는 올해를 ‘제2의 도약’을 하는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할 인권을 남발하는 등 이른바 텀핑작전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오자마자 그것부터 없앴습니다. 사업이 어려울수록 기본으



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머리로 하는 변칙 운영은 사업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제가 지향하는 키자니아 사업은, 첫째 철저한 교육적 가치, 둘째 품위와 감동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긴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90개의 각종 직업 실태가, 규모만 작다 뿐이지 실제와 똑 같습니다. 이곳에 온 아이들은 장래 갖게 될지도 모르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몰랐던 직업 세계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키자니아에 참 잘 보냈구나’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어, 애가 거기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다행히 3,4백명에 달하는 슈퍼바이저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사우회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최동운(관리, 편집위원)





##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정 호 준(기술,  
해달별천문대  
대표)

3월 8일~25일 까지 남미의 칠레와 볼리비아에 다녀왔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첫째, 볼리비아의 우유니에 있는 소금호수에 반영된 은하수를 찍는 것. 둘째, 칠레에 있는 세계적인 천문대 3곳의 시설을 둘러보고 천문대를 배경으로 은하수 사진을 찍는 것이다. 낮에는 자거나 이동하고, 밤에는 철야로 별 사진을 찍는 고된 일정이다.

10일 아침 8시, 일행 3명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350km쯤 떨어진 라세레나에 있는 해발 2,400m의 라실라 천문대(La Silla Observatory)로 향했다. 라실라는 칠레에 있는 유럽남천문대(ESO) 4개중 하나다.

ESO에선 우리에게 2일간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줬고 그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연구원 김 삼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2.2m 반사망원경 내부를 자세히 보여줬다. 12일 아침 10시, 라실라를 출발해 비행기로 산티아고를 거쳐 칠레 북쪽 끝에 위치한 칼라마에 도착, 렌터카로 아타카마(해발 2,400m)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 아타카마는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잉카의 모습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산악형 사막에서 유일하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칠레 북부지역은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벌판이 끝없이 이어진다. 지구 자전으로 인해 적도 부근엔 항상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분다. 이른바 동서무역풍. 지각의 움직임으로 잔뜩 압력을 받은 땅이 바다 밑에서부터 6천미터가 넘게 솟아

오르는 과정에 전부 돌로 변해 토양은 온통 돌투성이다. 15일에는 세계 최대급 망원경이 있는 파라날 천문대(Paranal Observatory)로 갔다. 망원경 이름이 '매우 큰 망원경'(Very Large Telescope)VLT다. 일몰 시간대에 직경 8.2m 반사경을 가진, 대략 10층 아파트 높이만큼 큰 망원경 4대가 동시에 관측 준비를 하는 데 그렇게 큰 구조물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파라날에서 밤샘촬영을 마치고 곧바로 볼리비아의 우유니를 향했다. 볼리비아에서 첫날 묵을 숙소는 "라구나 콜로라도"라는 빨간 빛을 띄는 호수가 있는 곳인데 해발 4,600m다. 고산병 증세로 머리가 아프고 일행 2명은 구토를 한다.

17일은 종일 자동차로 달려 저녁 때 해발 3,600m 우유니에 도착, 곧바로 소금호수로 가서 호수에 반영된 은하수를 밤새 촬영했다. 구름이 많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유니의 석양

18일은 일몰부터 촬영하려고 잔뜩 기대하고 나갔지만, 날씨가 어제보다 더 나쁘다. 다행히 지구의 경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홀한 석양을 볼 수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잔잔한 물에 반영된 새빨간 석양이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연출했다. 그러나 잠시 후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밤

늦도록 기다렸지만 번개는 그치지 않았고, 일행은 오히려 번개를 찍겠다고 분주했다.

19일엔 우유니에서 최고로 비싼, 소금으로 지어진 호텔로 옮겼다. 모든 벽체는 물론 식탁과 소파, 바닥까지 모두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칠레로 가는 모든 육로가 막혔단다. 지난 밤 많은 비가 와서 길이 막힌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20일 새벽 1시에 호텔을 출발해 호수를 건너다 중간에 2시간가량 은하수촬영을 하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밤 1시에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기다리는데, 가이드가 오질 않는다.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든다. 새벽 3시에야 가이드가 왔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고치느라 늦어 미안하단다. 화가 났지만, 외준 것만도 고마워서 가이드의 등을 두



파라날 천문대의 VLT 앞에서

4대나 보인다. 해가 떠올라 물 밑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속력을 내어 달리며 무사히 호수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20일 낮 11시, 무사히 볼리비아 국경을 통과했고, 저녁 6시 가까이 돼서 아타카마 숙소로 도착했다.

21일 저녁 6시 알마(ALMA, Atacama Large Millimeter Array)에 도착했다. 3,600m에 위치한 관리동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다. 해발 5,000m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작은 산소통을 하나씩 주며, 절대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란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밤 8시, 5,040m에 위치한 안테나 지역에 올라갔다. 크게 힘들지 않다.

그동안 고산지대에 많이 적응됐나 보다. 직경 12m 파라볼라 안테나가 장착된 전파망원경이 54개, 직경 7m 안테나가 12개 총 66개의 커다란 접시안테나가 동시에 하늘의 같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장관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안테나 하나의 무게가 무려 100톤이다. 서둘러 밤새 촬영할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카메라로 안테나들의 모습을 담았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그곳을 떠났고, 이렇게 별을 찍는 여행은 마무리 됐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파라날 천문대 입구



라실라 천문대



ALMA의 전파망원경



## 예술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주철환(편제,  
서울문화재단  
대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지원하려면 지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재단의 슬로건입니다. 영어로는 "Apply! Supply!"입니다. 직원들만 하기엔 힘이 부치므로 장기적으로 천 명의 문화PD를 양성하고 있습니다.(여기서 PD는 Producer, Director보다는 Programmer, Designer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 기획하고 매개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화PD들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PD’라고도 부릅니다. ‘아! 문화PD’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력하는 일이 ‘문화철도사업’입니다. 광화문 일대에만도 지하철역이 여럿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저는 경복궁역 7번, 광화문역 1번, 시청역 3번 출구를 자주 드나듭니다. 지하철 안에서 목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의 표정도 살핍니다. 언젠가는 제가 앉게 될 경로석도 물끄러미 살펴봅니다.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커다란 스토리창고입니다.

10월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주관합니다. 서울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거리축제이며 동시에 일 년간 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응원한 모든 아이템들이 집대성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무나PD’가 함께 꾸미는 지하철 안팎은 상업광고 대신 시민들의 시화전, 사진전으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국악동호회와 직장인밴드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국회의사당역에선 의원들과 시민들의 합창이 울려 퍼질 겁니다. 명동역에선 뮤지컬 ‘노트르드 파리에’ 나



오는 ‘대성당들의 시대’가, 혜화역에선 시민연극제가 공연되고 지하철 부근의 학교들에선 동문화, 운동화가 열릴 겁니다. 장르 불문 게릴라콘서트도 시내 곳곳에서 열릴 겁니다.

‘우리 내기할까요’라는 캠페인도 시행중입니다. ‘내기’는 내부자문화에서 기부자문화로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누는 부자들(내부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부자들(재능 기부자, 재산 기부자)이 많아지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불안한 미래를 겁내며 돈을 통장에 쌓아두는 것보다는 지금 내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심장에 그 돈을 꽂아주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 재단에는 이런저런 이름의 카페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에 다수의 커피숍이 입주해있는 풍경을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웅기종기 모여 차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 바로 거기가 카페죠.

월요일 아침. 주니어카페가 시작됩니다. 입사 5년차 이하의 직원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죠. 당근케이크도 준비됩니다. (여기서 ‘당근’은 야채도 되고 ‘당연히’라는 부사도 됩니다.) 화요문화카페에서는 팀장 이상의 간부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며 회사현안을 논의하고, 금요시니어카페에서는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일을 돌아봅니다. (‘돌아갈 순 없어도 돌아볼 순 있다’는 게 금요일의 금언입니다)

저는 행복을 ‘3간의 하모니’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간은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간뿔은 틈이라는 뜻인데 저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예측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 사이의 틈을 벌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독사)도 있고 그 반대로 틈을 좁혀 사이 좋게 해주는 사

람(천사)도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후자입니다. 서로 몰랐거나 서먹서 먹해진 사람들을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해주었을 때 저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주니어모임장소는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진짜’카페입니다. 장소의 이름은 ‘스트라다’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길’이라는 뜻이죠. 저는 국어교사경력을 살려 ‘길’이라는 말의 어원을 설명해줍니다. “길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 길게 보아야 길이 보인다.”

인생이 흐릿하거나 막막하다고 푸념하는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조연입니다. 문화재단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은 ‘길(인생)에서 예술을 만나도록 해주는’게 역할입니다. 예술은 새로워야 하고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스트라다(길)에서 아트(예술)를 추구하는 이 시간을 ‘스타트’라고 줄여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술은 길 위에서 시작 Start=Strada+Art한다는 의미죠.

직원들과 여기저기 문화현장을 다니는 것도 즐겁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의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간 곳은 대만의 가이슝高雄이라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곳곳이 특색 있는 갤러리로 꾸며져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철도라는 말이 어울리는 풍경이었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예술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여행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5층에 있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아끼는 게 목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난 아직 걸을 수 있어’ ‘난 건강해. 지금 운동중이거든’ 계단에서 만나는 직원에게 아침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돌아오는 답은 예측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글쎄요’라고 답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분이 참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즐겁게 열어준 직원에게 저는 미소를 선물합니다. 가끔은 가방에서 저의 비상식량인 초콜릿을 꺼내



주기도 합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켵니다. 오늘의 뉴스와 일과를 살핀 후 층별 나들이에 나섭니다. 요즘은 3층 나들이가 특별히 즐겁습니다. 입구에 자리한 생활문화사업팀에 들어가면 삶은 달걀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직원들과 달걀을 까먹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질문 받고 ‘삶은 계란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우리 세대에겐 나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발걸음을 안으로 옮깁니다.

3층 중앙에는 축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영사모’ 회원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에는 직원과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어울리는 모임이 많습니다. 4인용 식탁, 월요문화카페, 꽃보다 문화에 이어서 최근엔 ‘영사모’가 결성되었습니다. ‘영사모’는 글자 그대로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화로 ‘코코’를 선정했습니다. 애니메이션영화는 제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본 포스터의 글귀가 자꾸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영화 속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적절한 비율로 등장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 소년의 증조할머니 코코가 소녀처럼 눈물 흘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소년소녀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영화에서 죽은 자들의 날은 길어야 3일입니다. 그들이 이승을 방문하려면 산 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부활은 없습니다. 마지막 음악 ‘Remember me’를 흥얼거리며 영사모 회원들과 악수했습니다.

“산 자들의 날은 365일이야. 살아있는 동안 사이 좋게 지내자.”